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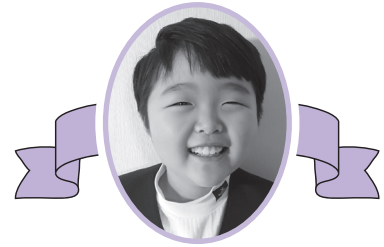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이다온 |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이다온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이유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는 산과 나무들 꽃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프신데도 매일 저를 학교에 등하교 시켜주십니다. 그때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다온아, 하늘 좀 봐”, “다온아, 구름 좀 봐”, “다온아, 단풍 좀 봐”, “다온아~ 다온아~”

서울에서 살 때 우리 가족은 산책을 나가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도 어쩔 때는 나쁜 아저씨들이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픈 엄마와 아빠와 저는 매연과 담배냄새 때문에 다시 집으로 피해 도망갔지만

집에 와서도 문도 열지 못하고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2년 동안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 또 병원에 오래 있다가 집에 오시고를 반복하다가 우리 가족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며 아빠가 매번 화가 나셨는데 지금은 우리 아빠도 달라지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호만천’에 매일 걸어서 산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마산과 백봉산을 앞뒤로 호평동 중심으로 지나가는 최고의 산책로인 호만천은 천마산에서 시작하는 사능천, 왕숙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호평과 평내 주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오남읍, 화도읍에 걸쳐 있는 높이 810.3m의 큰 산으로 690종의 식물이 자라며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입장료도 무료인 ‘천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에 이렇게 대단하고 멋진 산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집안에서 365일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마, 아빠께 감사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최고의 자랑 세 번째는 하수처리장을 예술품으로 만든 ‘피아노 폭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47-4에 위치해 있고, 높이 61m, 길이 91.7m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끌어 올려 흘러내리게 합니다.

물의 소중함과 하수처리과정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이 있고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등산길과 산책길이 있어 자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놀 수 없지만 엄청난 크기의 무료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살 때도 꼭 놀러왔던 곳입니다.

이 밖에도 평내 약대울 물놀이터, 연꽃이 엄청 많은 북한강변 물의 정원, 삼패한강공원 등등 아름다운 우리 고장 자연을 심지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남양주가 저는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나쁜 공기에 도망 다니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또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운아, 하늘 좀 봐.”

“다운아, 구름 좀 봐.”

“다운아, 나무 좀 봐.”

“다운아, 다운아.”

요즘에도 가끔씩 우리 엄마는 며칠씩 병원에서 자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행복. 어른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만 해도 아까운 세상에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지금이 저는 최고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심석초등학교 3학년 국화반 최고의 이민재 담임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장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